

우크라 종전안 진전에 국제 유가 5년만 최저치

브렌트유·WTI 2.7% 하락

국제 원유 가격이 거의 5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안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러시아산 원유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 원유 시장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제 유가를 끌어내렸다.

16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7% 하락한 배럴당 58.92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2.7% 내린 배럴당 55.27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감했던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 당국자들은 영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에너지엑스팩츠는 신속한 평화 합의는 연말·연초처럼 특히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 원유 시장의 가장 큰 지정학적 변수라고 평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리스타드 에너지 지정학 분석 책임자 호르헤 레온은 종전안이 합의되면 미국의 제재는 비교적 빨리 해제될 수 있지만 유럽의 제재는 점진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크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인프라 공격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레온은 “이렇게 되면 약 1억7천만배럴로 추정되는 해상에 있는 러시아산 원유의 상당한 물량이 시장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유가는 공급 과잉에 장기간 하락 압력을 받아오던 상태였다.

브렌트유는 5개월 연속 하락해 11년 만의 최저 하락 기록을 세웠다. 올해 들어서만 배럴당 20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배럴 증가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들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비(非)OPEC 회원국들의 증산에 따른 결과다.

IEA는 내년엔 하루 평균 370만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팬데믹 시기를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자이언트 판다를 내년 1월 중국으로 반환할 것이라고 발표한 다음 날,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서 방문객들이 사오사오와 레이레이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다. /AP=연합뉴스

마지막 판다 2마리 보자…中반환 앞두고 日서 관람 인파 몰려

일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판다 2마리가 내년 1월 말께 중국에 반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별 인사’를 나누려는 인파가 몰리고 있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사오사오’와 암컷 ‘레이레이’를 볼 수 있는 우에노동물원 판다 사육전시관에는 전날 많은 인파가 몰리며 관람 대기 시간이 평소의 3배인 약 3시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동물원 측은 혼잡 완화를 위해 1인당 관람 시간을 1분 정도로 제한하며 인파를 정리했다.

이 동물원 사육전시과장은 “반환 때까지 한 정된 시간이지만 이별을 아쉬워하며 지켜봐 주

기 바란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동물원은 오는 21일까지는 관람객의 사육관 입장 방식을 선착순으로 운영한 뒤 이달 23일부터 인터넷 예약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지막 관람 예정일은 내달 25일이다.

앞서 도쿄도는 우에노동물원에 남아있는 쌍둥이 판다의 내년 2월20일 반환 기한을 앞두고 중국 측과 교섭했지만, 1월 말께 반환하기로 결정됐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우에노동물원의 쌍둥이 판다는 와카야마현 데마파크 ‘어드벤처 월드’가 중국과 ‘자이언트 판다 보호 공동 프로젝트’ 계약에 의해 사육 중 이던 4마리를 지난 6월 일제히 반환한 후 일본에서 생활하는 마지막 판다로 남아있었다.

이들 판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는 판다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새로운 판다 대여를 중국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라서 실현 가능성은 당분간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이언트판다를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에 선물하거나 대여하는 형식으로 ‘판다 외교’를 펼쳐왔다. 중국은 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에 대해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는 자국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알프스서 2억년 전 공룡 발자국 발견

트라이아스기 초식공룡이 남긴 듯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에서 약 2억1천만년 전 트라이아스기 공룡들이 남긴 발자국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 따르면, 이탈리아 스텔비오 국립공원 고산지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은 최소 2만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5km에 걸쳐 분포해 있다. <사진>

발자국은 대부분 길쭉한 모양으로 일부는 지름이 40cm에 달했고, 잘 보존된 화석에는 발톱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다.

현장 조사에서 참여한 밀라노 자연사박물관 소속 고생물학자 크리스티아노 달 사소는 목이 길고 머리가 작으며 성체 길이가 최대 10m, 무게가 최대 4t에 달했던 이족 보행 초식 공룡들이 이들 발자국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발자국에서 나타난 특징은 프로사우로포드류 공룡에게서 보이는 것이다. 프로사우로포드는 후기 트라이아스기에 살았던 플라테오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공룡의 조상 격이다.

이 외에도 포식성 공룡과 악어의 조상인 아코사우루스 계열 공룡의 발자국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석에는 공룡들이 무리를 이뤄 일정한 보폭과 속도로 이동한 흔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평행하게 이어진 발자국은 집단 이동을, 원형으로 모여 선 자국은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동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주총리 아탈리오 폰타나는 “이 공룡 발자국 군집은 유럽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북극 기온 관측사상 최고…상승률 지구 평균의 두배 넘어”

美연구진 “강수량도 역대 최고”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이 급격히 더워지면서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연례 북극 보고서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북극

의 지표면 기온이 1900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0년이 관측 사상 북극이 가장 따뜻했던 10년이었다. 특히 작년 가을과 올 겨울이 각각 역대 고온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이후 북극의 연간 기온 상승률은 지구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 북극 해빙(海水)의 연 최대 면적

(1년 중 해빙이 가장 컸을 때의 면적)은 지난 3월 기준으로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47년 만에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극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데다 비가 더 많이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북극 강수량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착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